

유란시아서

<< [제 89 편](#) | [부분](#) | [내용](#) | [제 91 편](#) >>

제 90 편

주술 신앙 — 주술사와 사제

90:0.1 (986.1) 종교적 관행의 진화는 구슬리기, 회피, 귀신 쫓아내기, 강요 · 화해 · 달래기로부터 제물 바치기, 죄 지은 값 물어내기, 값을 치르고 되찾기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였다.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기술은 원시 제사의 형태로부터, 주물을 거쳐서 마술과 기적에 이르기까지 변화되었다. 물질을 초월하는 영역에 대한 사람의 개념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데 반응하여 의식(儀式)이 더 복잡해지자, 불가피하게 주술사 · 샤먼 · 사제들이 의식을 지배하였다.

90:0.2 (986.2) 원시인의 진보하는 개념에서 결국, 영 세계는 보통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다. 사람들 가운데 오직 예외인자들만 신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 영들은 오직 특별한 남자나 여자의 말만 듣곤 했다. 이처럼 종교는 차츰차츰 남의 손을 빌리게 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반드시 주술사나 샤먼이나^[95] 사제가 신자와 숭배 받는 대상 사이에 끼어든다. 오늘날 유란시아 체계의 조직된 종교의 신앙은 이 수준에서 진화하는 발전을 거치고 있다.

90:0.3 (986.3) 진화 종교는 단순하고 온통 강력한 두려움에서 생겨나고, 이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부딪쳤을 때 인간의 머리를 통해서 솟구친다. 궁극에 종교는 전능한 사랑을 매우 단순히 깨닫는 경지에 이르며, 인간의 혼이 **우주의 아버지**가 우주의 아들들을 한없이 사랑한다는 개념을 깨우칠 때, 이 사랑은 견딜 수 없이 그 혼을 휩쓴다. 그러나 종교적 진화의 시작과 절정 사이에는 샤먼이 판치는 긴 세월이 끼며, 이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개자 · 통역자 · 중재자로서 주재님께 자리를 차지한다.

1. 처음 샤먼 — 주술사

90:1.1 (986.4) 샤먼은 상급 주술사요, 예식을 맡는 주물 인간이요, 진화 종교의 모든 관습에서 초점이 되는 인물이었다. 많은 집단에서 샤먼은 전쟁 추장보다 높았는데, 이것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린다. 샤먼은 때때로 사제로서, 아니 사제인 임금으로도 활동하였다. 후일의 어떤 부족들은 초기의 샤먼 주술사(점쟁이)와 나중에 나타나는 샤먼 사제를 모두 가졌다. 여러 경우에 샤먼의 직책은 상속되었다.

90:1.2 (986.5) 옛날에 이상한 것은 무엇이나 귀신에 들렸다고 보았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기형(奇形), 정신이나 육체의 기형은, 주술사가 되는 자격이었다. 이들 가운데 많은 남자가 간질병을 가졌고, 많은 여자가 히스테리가 있었다. 이 두 종류는 신과 악마에 들린 것만 아니라, 옛적의 영감(靈感)의 상당 부분을 설명했다. 옛날부터 있던 사제들의 상당수가 나중에 망상증 환자라 부른 등급에 속했다.

90:1.3 (987.1) 사소한 문제에서 속임수를 썼을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샤먼은 그들이 신들렸다는 사실을 믿었다. 황홀한 상태나 몸이 굳어지는 발작에 스스로 빠질 수 있는 여자는 강력한 샤먼이 되었다.

나중에 그런 여자들은 선지자와 영 매체가 되었다. 그들의 몸이 굳어지는 황홀한 상태는, 주장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귀신과 교통하는데 보통 관련되었다. 못 여자 샤먼이 또한 전문 춤꾼이었다.

90:1.4 (987.2) 그러나 모든 샤먼이 스스로에게 속지는 않았다. 많은 샤먼이 눈치 빠르고 유능한 사기꾼이었다. 그 직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초심자는 주술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시련과 극기로 10년의 세월을 견습생으로 일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샤먼들은 전문 형태의 복장을 개발했고 신비스러운 행위를 흉내냈다. 그들은 부족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신비스러운 느낌이 들게 하는 어떤 신체적 상태를 유도하려고 흔히 마약을 이용했다. 보통 사람들은 날랜 손재주의 묘기를 초자연의 것으로 여겼고, 약삭빠른 사제들은 복화술(複話術)을 처음으로 이용하였다. 여러 옛날 샤먼은 뜻하지 않게 최면술과 마주쳤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배꼽을 오랫동안 뚫어져라 봄으로 자기 최면을 유도했다.

90:1.5 (987.3) 많은 사람이 이 술수와 속임수를 이용했지만, 하나의 등급으로서 그들의 명성은 결국 겉으로 나타난 업적에 달려 있었다. 샤먼이 시도한 일에 실패했을 때,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으면, 강등(降等)되거나 죽음을 당했다. 이처럼 정직한 샤먼은 일찍 이슬로 사라졌고, 오직 눈치 빠른 배우들만 살아남았다.

90:1.6 (987.4) 늙은이와 힘센 사람들의 손에서 부족 사무의 독점 지휘를 빼앗아 눈치 빠른 자, 영리한 자, 선견이 있는 자의 손에 던져 준 것은 주술 신앙이었다.

2. 주술 관습

90:2.1 (987.5) 영을 불러내는 것은 아주 정밀하고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였고, 옛날의 말로 행해지는 오늘날의 교회 의식과 견줄 만하다. 인류는 아주 일찍부터 초인간적 도움, 계시를 추구하였고, 사람들은 샤먼이 실제로 그러한 계시를 받는다고 믿었다. 샤먼들은 일할 때 암시의 큰 힘을 이용했어도, 거의 변함없이 그것은 소극적 암시였다. 겨우 최근에 와서야 적극적으로 암시 기술이 이용되었다. 샤먼 직업이 발전하는 초기에 그들은 비 부르기, 병 고치기, 범죄 찾아내기와 같은 직종으로 전문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병 고치는 것은 샤먼 주술사의 주요한 기능이 아니었다. 주요 기능은 차라리 생활의 위험을 알고 통제하는 것이었다.

90:2.2 (987.6) 고대에 종교와 속세에서 쓰인 흑마술은 사제나 예언자나, 샤먼이나 주술사들이 부릴 때 백마술이라고 불렀다. 흑마술을 실행하는 자를 마법사 · 마술사 · 요술사 · 마녀 · 마술쟁이, 강신술사 · 요술쟁이 · 점쟁이라 불렀다. 시간이 지나자, 자연을 초월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접촉은 모두 요술이나 주술로 분류되었다.

90:2.3 (987.7) 마녀의 마법은 이전에 있던 비정상이고 인정 받지 않은 영들이 부리는 마술을 포함했다. 샤먼의 주술은 보통의 영, 그리고 부족이 인정하는 신들이 행하는 기적과 관계되었다. 후일에 마녀는 악마와 연결되었고, 이처럼 종교적 불관용을 비교적 최근에 많이 드러내는 무대가 마련되었다. 마술은 많은 원시 부족에게 종교였다.

90:2.4 (987.8) 샤먼들은 우연이 영들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크게 믿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자주 결정을 내렸다. 이 제비 뽑는 성향이 현대에 남아 있는 것은 우연이 결정하는 많은 노름뿐 아니라, 또한 잘 알려진 “술래를 따돌리기”하는^[96] 운문(韻文)에서도 나타난다. 한때는 따돌림 받은 술래는 죽어야 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떤 어린아이 놀이에서 술래이다. 원시인에게 심각한 일이었던 것이 현대에 어린아이의 오락으로 살아남았다.

90:2.5 (988.1) “뽕나무 꼭대기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너는 분발할지라”하는 것처럼, 주술사는 징조와 전조를 크게 믿었다. 종족의 역사에서 아주 일찍부터 샤먼들은 별에 눈을 돌렸다. 원시의 점성술은 세계에 널리 퍼진 믿음이었요 관습이었다. 꿈의 풀이도 널리 퍼졌다. 이 모든 것 다음에, 죽은 자의 영과 교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변덕스러운 여자 샤먼이 뒤이어 나타났다.

90:2.6 (988.2) 고대에 기원이 있지만, 기우사(祈雨師)나 천기(天氣)를 움직이는 샤먼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죽 버티어 왔다. 극심한 가뭄은 옛날 농사꾼에게 죽음을 뜻했다. 날씨를 통제하는 것이 고대의 많은 마술의 목적이었다. 문명화된 사람은 아직도 대화할 때 날씨를 보통 이야기거리로 삼는다. 옛날 사람들은 모두 샤먼이 비를 내리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지만,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가 설명하는 그럴듯한 핑계를 내놓을 수 없으면, 그를 죽이는 것이 풍습이었다.

90:2.7 (988.3) **로마**의 황제들은 거둢 점성가들을 추방했지만, 대중이 그들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변함없이 되돌아왔다. 그들을 쫓아낼 수 없었고, **그리스도** 뒤 16세기에도 서양에서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점성술의 후원자였다. 총명하다고 생각되는 허다한 사람이, 행운의 별이나 불운의 별의 지배를 받으며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고, 천체들이 나란히 있는 것은 땅에서 여러 가지 모험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아직도 믿는다. 콧구멍 넓은 사람들이 아직도 점쟁이를 후원한다.

90:2.8 (988.4) **그리스인**은 신탁(神託)의 조언이 효력이 있다고 믿었고, 중국인은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마술을 썼으며, 주술은

인도에서 번성했고 아직도 중앙 **아시아**에서 버젓이 지속한다. 주술은 세계의 많은 곳에서 두루, 겨우 요즈음에야 버린 관습이다.

90:2.9 (988.5) 때때로 참 선지자와 선생들이 일어나서 주술 신앙을 비판하고 폭로하였다. 사라지는 홍인조차도 지난 몇백 년 안에 그러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쇼니** 족의 **텐스콰타와**는 태양의 일식(日蝕)이 1808년에 있을 것을 예언했고, 백인의 악덕을 비난하였다. 허다한 참된 선생이 오랫동안의 진화 역사를 통해서, 여러 부족과 종족 사이에서 나타났다. 어떤 시대의 샤먼이나 사제가 대중(大衆) 교육을 반대하고 과학의 진보를 망치려고 애쓰더라도 그들에게 도전하려고 참된 선생들이 늘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90:2.10 (988.6) 여러 면에서, 빛나간 방법으로, 옛 샤먼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요 섭리의 보관자로서 명성을 유지했다. 그들은 갓난아기에게 물을 뿌렸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며, 남자들에게 할례를 주었다. 모든 장례식을 주관했고, 죽은 자가 영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공식으로 선포했다.

90:2.11 (988.7) 샤먼 사제와 주술사들은, 겉으로 영들에게 바치는 제물인 여러 가지 요금을 축적함으로 흔히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땀하지 않게 샤먼은 실질적으로 부족 재산을 다 끌어 모으곤 했다. 부자가 죽고 나면, 그의 재산을 샤먼과 어떤 공익 사업이나 자선(慈善)에 똑같이 나누는 것이 풍습이었다. 이 관습은 아직도 **티벳**의 어떤 구석에서 행해지는데, 거기에는 남자 인구의 반이 이 등급의 비생산자에 속한다.

90:2.12 (989.1) 샤먼은 옷을 잘 차려 입었고, 아내를 보통 몇 명 거느렸다. 그들은 최초의 귀족이었고, 부족의 모든 제한에서 면제되었다. 그들은 아주 흔히 낮은 등급의 머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경쟁자를 마녀나 마술사라고 불러서 억눌렀고, 아주 흔히 영향력과 권력을 가진 자리에 올랐으며, 그래서 추장이나 임금을 지배할 수 있었다.

90:2.13 (989.2) 원시인은 샤먼을 필요악이라 여겼다. 샤먼을 무서워했으나 사랑하지는 않았다. 옛날 사람은 지식을 존경했고, 지혜를 존중하고 그 값을 치렀다. 샤먼은 대체로 사기(詐欺)였지만, 주술을 존중하는 것은 종족의 진화에서 지혜에 웃돈을 지불했음을 잘 보여준다.

3. 병과 죽음에 대한 샤먼 이론

90:3.1 (989.3) 옛날 사람이 자신과 물질 환경이 직접, 귀신의 번덕과 영의 취미에 민감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의 종교가 물질적 일에만 순전히 관계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현대인은 자기의 물질 문제를 직접 공격한다. 사물이 그의 머리를 총명하게 쓰는 데 반응하는 것을 깨닫는다. 마찬가지로 원시인은 물리적 영토에 있는 생명과 에너지를 수정하고, 아니 통제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우주에 대한 원시인의 이해가 제한된 것은 그로 하여금 귀신 · 영 · 신들이 몸소 직접, 생명과 물질을 낱알이 통제하는 데 관여한다는 관념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치에 맞게 원시인은 이 초인간 매개자들의 은혜와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90:3.2 (989.4) 이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고대의 종파 예식에서 설명할 수 없고 비합리적인 많은 것이 이해된다. 종파의 예식은 원시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를 통제하려는 시도였다. 원시인은 목숨을 연장하고 건강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모든 병과 죽음 그 자체가 최초에는 영 현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샤먼이 주술사와 사제로서 활동하면서, 또한 의사(醫師)와 외과 의사로 수고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90:3.3 (989.5) 원시인의 머리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장애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에 논리가 있었다. 생각 깊은 사람들이 병과 죽음을 지켜볼 때, 그들은 이러한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착수하고, 이해하는 데 따라서, 샤먼과 과학자는 고통에 관한 다음 여러 이론을 주창하였다:

90:3.4 (989.6) 1. 귀신 — 영의 직접 영향. 병과 죽음을 설명하는 데 가장 일찍 제기된 가설은 영들이 혼이 몸에서 나오도록 유혹함으로 병을 일으키며, 혼이 돌아가지 못하면 죽음이 따른다는 것이었다. 옛날 사람들은 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악의로 하는 행위를 너무 무서워해서, 혼히 먹을 것이나 물도 주지 않고 아픈 사람을 버렸다. 그릇된 근거와 상관없이, 이 관념은 병든 사람을 실질적으로 격리하고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았다.

90:3.5 (989.7) 2. 폭력 — 분명한 원인. 어떤 사고나 죽음의 원인은 확인하기 아주 쉬웠고, 그래서 이러한 원인은 귀신 행위의 종류에서 일찍 제거되었다. 전쟁, 동물과 싸움하기, 그리고 기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매체들에 따르는 사망과 상처는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병이 낫는 데 오래 걸리거나, 또는 “자연스러운” 원인으로 생겨도 상처가 곪는 것은 여전히 영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오랫동안 믿었다. 관찰할 수 있는 아무런 자연 요인을 발견할 수 없으면, 영 귀신들이 여전히 병과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90:3.6 (990.1) 오늘날 **아프리카**와 기타 지역에서, 횡사(橫死)가 아닌 죽음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사람을 죽이는 원시 민족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의 주술사는 죄 있는 편을 지적한다. 어머니가 아이를

날다가 죽으면, 그 아이는 즉시 목 졸려 죽음을 당했다 — 한 목숨으로 다른 목숨을 갚는다.

90:3.7 (990.2) 3. 마술 — 적들의 영향. 많은 질병이 요술, 곧 악한 눈, 그리고 누구를 지적하는 마술 활의 작용으로 인하여 생긴다고 생각되었다. 한때는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정말로 위험했다. 아직도 손가락질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분명치 않은 병과 죽음이 생길 경우에, 옛날 사람들은 정식으로 검시하고, 시체를 해부하고, 무엇을 발견하면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결정을 내리곤 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요술의 책임으로 돌리곤 했으며, 따라서 그에 책임 있는 마녀를 죽이는 것이 필요했다. 옛날 검시관의 검시는 마녀라고 생각된 자들의 목숨을 많이 건졌다.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부족 사람은 스스로 마술을 쓴 결과로 죽을 수 있다고 믿었고, 이 경우에는 아무도 고발되지 않았다.

90:3.8 (990.3) 4. 죄 — 금기 위반에 대한 벌. 비교적 근래에 이르러, 질병은 개인이나 종족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이라고 믿었다. 이 수준의 진화를 거치는 민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론은, 사람이 금기를 어기지 않았으면 질병으로 고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질병과 고통을 “그들 안에 있는 **전능자의 화살**”로 여기는 것은 그러한 관념의 전형이다. 중국인과 **메소포타미아인**은 오랫동안 병이 나쁜 악마들이 행동한 결과라고 여겼다. 하지만 **갈대아인**은 또한 벌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신이 성난 결과로 질병이 생긴다는 이 이론은, 문명화되었다고 소문난 여러 집단의 **유란시아인** 사이에서 아직도 유행한다.

90:3.9 (990.4)

5. 자연 원인. 인류는 에너지 · 물질 · 생명을 다루는

물리적 분야에서, 원인과 결과의 상호 관계인 물질적 비밀을 배우는 데 아주 더디었다. 고대 **그리스인**은 **아담손**의 가르침의 전통을 간직했기 때문에, 모든 병이 자연의 원인에서 생긴 결과인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자였다. 과학 시대의 전개는 질병과 죽음에 대하여 사람이 오랜 세월을 걸쳐 가졌던 이론을 느리고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열병은 초자연적 질환 종류로부터 처음으로 제거된 인간의 한 질병이었고, 점진적으로 과학 시대는 아주 오랫동안 인간의 지성을 가두어 두었던 그 무지의 사슬을 깨뜨렸다. 노령(老齡)과 전염을 이해하는 것은 귀신 · 영 · 신들이 인간의 비참한 일과 필사자의 고통을 몸소 일으킨다는, 사람의 두려움을 차츰 없애 버리고 있다.

90:3.10 (990.5)

진화는 어김없이 그 목적을 이룬다. 진화는 미지의 것을

미신으로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불어넣으며, 이것은 **하나님** 개념이 생기는 발판이다. 그리고 신에 대한 이해가 진보되고 나서, 바로 이 진화 기법은 나란히 일어나는 계시의 행위를 통해서, 어김없이 생각의 힘을 움직이게 만들며, 이것은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인 발판을 용서 없이 없애 버릴 것이다.

4. 샤먼이 쓰던 의술

90:4.1 (990.6)

옛날 사람의 생활 전부가 질병의 예방이었다. 그들의

종교는 적지 않게 질병을 예방하는 기술이었다. 그리고 이론이 잘못된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그 이론을 실천하는 데 마음을 다하였다.

그들의 치료 방법을 한없이 신뢰하였고, 이것은 그 자체로서 강력한 치료법이였다.

90:4.2 (991.1) 이 옛날의 한 샤먼의 어리석은 보살핌을 받고서 낫는 데 필요한 믿음은 결국, 후일에 비과학적 병 치료에 참여하는 어떤 후계자의 손에서 치료받는 데 필요한 믿음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90:4.3 (991.2) 원시적인 축에 속하는 부족들은 아픈 사람을 크게 무서워했고, 아픈 사람을 오랜 세월 동안 주의해서 피하고, 부끄럽게도 소홀히 하였다. 샤먼 직책이 진화되어 질병을 고치는 데 찬성하는 사제와 주술사가 생겼을 때, 인도주의가 크게 진보하였다. 다음에 씨족 전체가 병실로 몰려가서 병 귀신을 소리쳐 쫓아내며 샤먼을 돕는 것이 풍습이 되었다. 여자가 진찰하는 샤먼이 되는 일이 드물지 않았고, 한편 남자는 치료를 베풀곤 했다. 질병을 진찰하는 보통 방법은 한 동물의 창자를 검사하는 것이었다.

90:4.4 (991.3) 노래하고, 높은 소리를 지르고, 몸에 안수(按手)하고, 환자에게 입김을 불어서, 그리고 기타 여러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였다. 후일에는 성전에서 잠자는 데 의존하는 것이 널리 퍼졌고, 자는 동안에 치료가 일어난다고 생각되었다. 주술사들은 성전에서 잠자는 것과 관련하여 결국 실제로 수술을 해 보았다. 처음에 한 수술 중에서 두통 귀신이 도망가게 하려고 머리뼈에 구멍 뚫는 수술이 있었다. 샤먼들은 골절과 뻥 것을 치료하고 부스럼과 종기(腫氣) 째는 것을 배웠다. 여자 샤먼은 산파 노릇에 숙달하게 되었다.

90:4.5 (991.4) 몸에서 환부나 더러워진 곳에 무언가 요술인 것을 문지르고, 부적을 던지고,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치료 방법이었다. 누구라도 버려진 부적을 집으면, 그는 즉시 그 병에 걸리거나 흠을 얻는다고 믿었다. 약초와 다른 진짜 약들이

소개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주문을 외우는 것과 관련하여 마사지, 곧 몸을 주물러서 영 쫓아내기가 개발되었고, 현대인이 바르는 약을 문질러 몸에 넣는 것처럼, 약을 문질러서 집어넣으려는 노력이 이에 앞섰다. 방혈과 더불어, 상처난 부분을 흡각(吸角)으로 피 뽑아내기, 그리고 빨아내기가 병을 일으키는 영을 없애는 데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90:4.6 (991.5) 물은 효험 있는 주물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데 이용되었다. 병을 일으키는 영을 땀을 흘려서 없앨 수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 왔다. 수증기 목욕을 높이 쳐주었고, 천연 온천은 곧 원시 요양지로서 번창하였다. 시초 인간은 열이 아픔을 덜어준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햇빛, 신선한 동물의 기관(器官), 뜨거운 진흙, 뜨거운 돌을 썼고, 이 방법들 가운데 많은 것이 아직도 이용된다. 영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으로 리듬이 사용되었고, 톱툰 북이 널리 쓰였다.

90:4.7 (991.6)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병은 영과 동물 사이에 꾸민 사악한 음모로 일어난다고 생각되었다. 동물이 일으키는 모든 질병에는 유익한 식물(植物) 치료법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낳았다. 홍인은 식물이 보편적 치료약이라는 이론에 특별히 집착했다. 그들은 식물의 뿌리를 뽑았을 때 남은 뿌리 구멍에 반드시 피 한 방울을 집어넣었다.

90:4.8 (991.7) 금식, 식사 조절, 반대 자극제들이 흔히 치료 조치로서 쓰였다. 인간의 분비물은 분명히 마력이 있었으니까, 높이 쳐주었다. 이처럼 피와 오줌은 아주 일찍부터 쓰인 약이었고, 뿌리와 여러 가지 소금으로 인하여 약의 종류가 확대되었다. 샤먼들은 냄새가 나쁘고 맛이 좋지 않은 약으로 질병 귀신을 몸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은 아주 일찍부터 일상의 치료법이 되었고, 날 코코아와 키니네의 가치는 약학에서 가장 초기의 발견에 속한다.

90:4.9 (992.1)

그리스인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참된 합리적 방법을 처음으로 발달시켰다. **그리스인**과 **에집트인**은 다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부터 의학 지식을 받았다.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를 낫게 하는데 아주 일찍부터 쓰인 약이었다. 아주까리 기름과 아편을 **수메르인**이 이용하였다. 효과 있는 이 고대의 치료 비법의 다수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 효력을 잃었다. 사기와 미신 실습이 성공하는 데는 비밀이 반드시 필수였다. 오로지 사실과 진실이 완전히 이해하는 빛을 추구하며, 과학적 연구로 얻는 조명과 계몽을 달가워한다.

5. 사제와 의식

90:5.1 (992.2)

의식(儀式)의 요점은 그 연기를 완벽하게 하는 데 있다. 야만인 사이에서 의식은 아주 정밀하게 실행해야 한다. 의식을 올바르게 치렀을 때에야 그 예식이 영들에게 강요하는 힘을 소유한다. 의식에 흠이 있으면, 다만 신들을 성나게 하고 노엽게 만들 뿐이다. 따라서, 사람의 천천히 진화하는 머리가 의식 치르는 기술이 그 효력의 결정 요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빈틈없는 의식의 거행을 지휘하려고 머지않아 초기의 샤먼이 훈련 받은 사제로 진화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래서 몇만 년 동안 끊임없는 의식은 사회를 거추장스럽게 만들고 문명을 성가시게 하였으며, 생활의 모든 행위, 종족의 모든 사업에 건딜 수 없는 짐이 되었다.

90:5.2 (992.3)

의식은 풍습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의식은 사회 관습과 종교 관습의 보존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신화(神話)를 만들어내고 지속시킨다. 또 한편, 의식 자체가 신화로부터 생겼다. 의식은 흔히 처음에 사회 예식이었고, 나중에 경제 예식이 되었고,

마침내 종교 예식의 거룩함과 위엄을 얻었다. 의식은 기도 · 춤 · 연극에서 보다시피, 개인이나 집단으로 — 또는 양쪽에서 — 실행할 수 있다.

90:5.3 (992.4) 아멘과 셀라와^[97]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낱말은 의식의 일부가 된다. 욕하는 버릇, 신성 모독은 거룩한 이름을 예전에 의식에서 되풀이하던 것이 타락된 것이다. 거룩한 성소까지 순례하는 것은 아주 오래 된 의식이다. 의식은 다음에 정화하고 깨끗이 하고 성화(聖化)하는 공들인 예식으로 성장했다. 원시 부족에서 비밀 사회의 입회식은 실제로 투박한 종교 의식이었다. 옛날 신비 종파들의 예배 기법은 단지 누적된 종교 의식을 한 번 길게 연출하는 것이었다. 의식은 마침내 현대 종류의 사회 예식과 종교적 예배, 곧 기도와 노래, 화답하여 글 읽기, 그리고 다른 개인 및 집단의 영적 헌신을 포함하는 예배로 진화하였다.

90:5.4 (992.5) 사제는 샤먼으로부터 신탁을 받는 사제, 점쟁이, 노래하는 자, 춤추는 자, 기우사(祈雨師), 종교 유품 보호자, 성전 관리자, 그리고 사건을 점치는 자를 거쳐서, 종교적 예배를 실제로 지휘하는 자의 신분에 이르기까지 진화했다. 결국 그 직책은 상속하게 되었고, 연속되는 사제 계급이 일어났다.

90:5.5 (992.6) 종교가 진화함에 따라서 사제들은 그들의 타고난 재주나 특별한 취향에 따라서 전문화하기 시작했다. 더러는 노래하는 자, 더러는 기도하는 자, 더러는 제사하는 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웅변하는 자 — 설교자 — 가 나타났다. 종교가 제도화되었을 때, 이 사제들은 “하늘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우겼다.

90:5.6 (992.7) 자신들의 경건함과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자를 신비에 젖게 하려고 옛날 말로 종교 의식을 거행함으로, 또 잡다한

마술의 속임수로, 사제들은 서민을 감동시키고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언제나 애써 왔다. 이 모든 것에 있는 큰 위험은 의식이 종교의 대용품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90:5.7 (993.1) 사제들은 과학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고 영적 진보를 막으려고 많은 일을 했지만, 문명을 안정시키고, 어떤 종류의 문화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사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의 지휘자로 활동하기를 그만두었고, 신학으로 — **하나님**을 정의(定義)하는 시도로 — 눈길을 돌렸다.

90:5.8 (993.2) 사제가 종족의 목에 매달린 맷돌처럼 무거웠음을 부인하지 않지만, 참된 종교 지도자는 더 높고 더 나은 실체에 도달하는 길을 가리키는 데 귀중하였다.

90:5.9 (993.3) **[네바돈의 한 멜기세덱이 발표하였다.]**

[95]: 90:0.2 샤먼은 주술사로서 옛날 우리나라의 박수나 무당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높았다.

[96]: 90:2.4 숫자를 풀이하는 노래에서 마지막 음절을 부르게 된 아이가 빠지는 놀이.

[97]: 90:5.3 셀라는 시편에 자주 나오는 분명치 않은 말, 감탄어나 높은 가락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